

김해 圓明寺 乾漆地藏菩薩坐像에 대해

이 희 정*

〈목 차〉

- I. 머리말
- II. 건칠지장보살상의 현상
- III. 중수발원문의 내용
- IV. 지장보살좌상의 특징 및 제작시기
- V. 맺음말

국문요약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에 위치한 원명사 지장전에는 건칠지장보살좌상 1구가 봉안되어 있다. 이 상은 높이 75.5cm에 인체의 비례가 좋고 안정감 있는 자세가 특징으로 가벼운 무게 때문에 건칠상일 것으로 추정되어왔다. 2009년 1월에 2차에 걸쳐 실시된 현장조사 결과 건칠이라는 재료의 확인과 더불어 내부 복장물에서 개금중수한 발원문과 妙法蓮花經 1책, 忌日記과 五寶瓶 등의 귀중한 자료가 발견되었다.

특히 개금중수발원문에는 至元2年인 1336년에 원명사 건칠지장보살좌상이 조성되었으며, 조성후 도금이 퇴락하여 1737년에 중수된 기록 그리고 그 이전인 1650년을 전후로 하여 다시 한번 중수가 있었음이 밝혀 졌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원명사 지장상은 원래는 청화산 백련사 즉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는 군위군 소보면 백현동에 있었던 사찰의 작품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원명사 건칠지장보살상은 경전에 의거한 전통적인 민머리의 지장보살상이며, 살이 빠지면서 정돈된 듯한 얼굴이나 당당하면서 안정된 다리 위에 표현된 군의 주름 등 14세기 고려 후기 불상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민머리형 건칠지장보살

* 문화재청 김해국제공항 문화재감정관

상은 1348년 경천사지 10층석탑의 민머리형 지장보살이 부조로 조성된 것을 제외하면 불상의 사례로는 극히 드문데 반해 같은 시기 불화에서는 여러 점의 사례가 남아 있어 참고된다.

김해 원명사의 건칠지장보살좌상은 경상북도 군위에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경상도는 《世宗實錄地理志》나 《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 의하면 칠 생산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 주목된다.

원명사 건칠지장보살좌상은 건칠로 조성된 국내 유일의 민머리형의 지장보살상으로 1336년이라는 조성연대를 가지고 있어 밝혀지지 않은 고려 후기 불상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 또한 다양한 고려시대의 불교문화의 양상을 밝힐 수 있는 작품으로써의 의미도 있다고 본다.

주제어 : 원명사, 청화산 백련사, 성문형 지장보살, 건칠

I. 머리말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에 위치한 원명사 지장전에는 건칠지장보살좌상 1구가 봉안되어 있다. 이 상은 높이 75.5cm에 인체의 비례가 좋고 자세에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가벼운 무게 때문에 건칠상일 것으로 추정되어왔다. 2009년 1월에 2차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건칠상이라는 확인뿐 만 아니라 내부 복장 물에서도 개금중수한 발원문과 1477년 간행된 妙法蓮花經 1책, 1835년명 忌日記과 五寶瓶 등의 귀중한 자료가 발견되었다. 특히 개금중수 발원문에는 중수의 사실만이 아니라 원 봉안처의 내용과 “至元二年”이라는 조성시기까지 언급되어 있어 칠생산지와 건칠상의 관계¹⁾, 절대 연대가 드문 고려 후기 불교 조각에 중요한 기준 작으로서 매우 주목되는 작품이다. 또한 김해 원명사 건칠지장보살좌상(이하 원명사 지장상)은 외형적인 모습이 전통 성문형으로서 그 사례가 극히 드문 형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 없는 원명사 지장상의 도금중수기의 내용과 양식적 특징 그리고 조성시기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건칠지장보살상의 현상

민머리를 한 원명사 지장상은 머리높이 23.3cm, 전체높이가 75.5cm로²⁾ 1대 3.2의 비율과 풍만하고 신체에서 오는 안정감 있는 자세가 특징이다(도 1).

민머리는 검은 채색으로 머리와 이마를 구분하였다. 방형의 얼굴은(도 2) 턱이 둥글고 좁은 이마로부터 날카롭게 뺨은 긴 코와 작은 입 등이 특징적이며, 전체적으로 양 뺨과 턱에 볼록함이 적고 뚜렷한 이목구비로 인해 남성적 인상이 강하다. 이는 비슷한 시기의 다른 상들에서 볼 수 없는 요소이다. 다만 좁은 이마 라든지 둥근 턱, 뺨에 살이 붙은 단정한 얼굴 모습에서 1346년 충청남도 청양장곡사 동조약사여래좌상과 닮아 보인다. 그리고 명문은 없지만 14세기로 추정되는 호림미술관 소장 금동보살좌상과도 비교된다. 사실적으로 표현된 양쪽 귀에는 가느다란 꺾불 끝에 원형의 귀걸이가 부착되어 있다.

법의를 오른쪽 속에 편삼을 입고 그 위에 대의를 편단우견으로 걸친 형식으로, 돌려 입은 대의는 왼쪽 팔뚝 위로 넘겨 마무리하였다. 옷 주름은 두껍고, 탄력

1) 崔恩領, <韓國における乾漆佛像>, 《デアulte》第十九號(平成15年5月), p.27

2) 전체적인 규격은 다음과 같다. 像高 75.5 cm, 頭高 23.3 cm, 肩幅 34.3 cm, 膝幅 56.0 cm, 膝高 14.4 cm



도 1. 김해 원명사

감을 잃은 듯하며, 다리 밑으로 넣은 옷자락은 간략화 된 경향을 보여준다(도 4). 상의 우측과 뒷면(도 3·5)은 오른쪽 어깨에 편삼이 전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왼쪽 어깨로부터 오른쪽 겨드랑이로 돌려 입은 대의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이어지는 전통적인 형식이다. 그러나 범의 사이로 드러나 볼록한 가슴과 복부가 노출되어 있는 모습은 통일신라에서는 볼 수 없는 고려적인 특징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승각기 없이 볼록하게 배를 표현한 점 등은 다른 고려 후기 불상들에서는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점이다.

결가좌한 다리에는 대담하면서도 탄력 있는 두 개의 큰 호형 주름이 돌아가고 그 사이에 잔주름이 적절히 구사되어 있는데, 다리 위의 도드라진 주름은 기년명은 없으나 14세기 중반작으로 추정되는 호암미술관소장 금동여래좌상이나 국



도 3. 상의 우측면

도 4. 상의 좌측면

도 5. 상의 뒷면

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관음보살좌상에서 무릎과 다리위로 등글게 돌아가는 주름모양이 확인되며, 특히 여말선초로 편년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건칠보살좌상과는 매우 유사해 14세기의 특징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 조선초기 양식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손은 별조하여 끼웠다. 수인은 중품하생인을 결하였는데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오른손은 손바닥을 밖으로 하여 위로 들고, 왼손은 왼쪽 다리 위에 놓은 형태로 들었으며, 보주가 올려져 있다. 손가락은 짧고 양 손목에는 팔찌장식이 있다.



도 6. 원명사 건칠지장보살 복장내부



도 7. 복장물 제거후 상의 내부

원명사 지장상은 포와 칠을 반복해 제작한 건칠상으로 불상의 내부는 완전히 비어 있다. 내부는 검은 옷칠이 되어 있으며, 건조해 갈라진 포 사이로는 흰 입자들이 드러나 있다(도 7). 비어있는 공간에는 황포와 한지에 싸인 복장물이 납입되어 있었다(도 6). 사찰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1992년 개금중수 당시 다리쪽으로 황목과 목심이 다리에서 어깨 쪽으로 보강된 것으로 보이며, 불상저부의 좌대는 앞이 넓고, 뒤가 좁은 형태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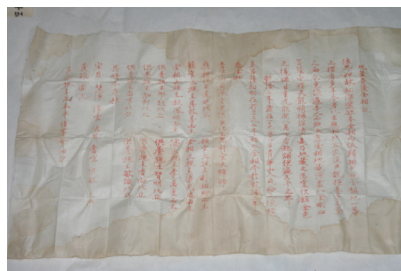
이상의 특징을 통해 원명사 지장상은 민머리 지장상에 상 뒷면의 편삼과 편단우견의 착의법, 왼팔 위로 내린 대의 마무리 등으로 전통적인 요소가 지속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반해 가슴과 볼록한 배가 전면으로 드러나는 신체의 표현은 고려후기의 회화적인 특징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단정하면서 사실적인 얼굴의 모습은 14세기 불상의 보편적인 특징의 하나이며, 탄탄한 다리에 대담하면서도 탄력 있는 호형의 균의주름은 동시기인 14세기 건칠불상에서도 확인되어 원명사 지장상은 전체적으로 고려 14세기 불상양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중수발원문의 내용

원명사 지장상의 복장에서는 忌日記, 묘법연화경을 비롯해³⁾ 67.4×41.7cm 크기 한지에 붉은 해서체로 적힌 金相記가 발견되었다(도 8).



도 8. 복장물 전체



도 9. 중수발원문(금상기)

金相記는 개금중수발원문으로, 금상기로 기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金相’은 불상의 형식과 관련된 의미로써 32吉相중에 ‘金色相’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부처의 몸은 금색으로 빛을 발한다는 뜻을 조형적으로 불신에 도금 혹은 금박으로 표현하고 있다. 원명사 지장상의 발원문에 보면 ‘표면이 탈금되어 흉한 모습으로 있으니 안타까움에 다시 개금하여 불신에 빛을 발하고 지는 한다’는 내용으로 이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도금중수발원문에는 중수 사실 뿐 아니라 불상의 최초 조성 시기를 비롯해 봉안처에 대한 내용이 있어 불상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도 9) 금상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地藏菩薩金相記
 法界如故秘深邃欲奉金相而依歸相色脫金顏圯一尊
 之攢眉多年今者化主應相比丘家道戶說挾卷子而勸
 之西乞東談遇善人而施矣爲金相地藏傍畫八金剛四
 菩薩帝釋天龍幘擁護法界是乃地藏之爲靈伏願金色
 之後佛日重光能開八萬中香起烟便遍三千之界

³⁾ 그 외 복장물로 창건주 원명스님이 사용한 염주 2벌, 1992년 개금중수문이 납입되어 있었다. 유물은 최근 것으로 본 내용에서는 제외한다. 특히 1477년 간행된 妙法蓮華經은 좀더 비교 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자료임에는 분명하다. 여기에서는 필자의 역량의 부족으로 충분한 내용을 다루지 못함으로 본 소개에서는 간략하게 언급하다.

乾隆二年歲在丁巳五月日青華山人戒裕文俊識
 蓋菩薩初創在於至元二年始以金相今於乾隆二年亦
 爲金相
 青華山白蓮寺老德兼化主思軒堂大禪師
 應相化主 道明比丘 願堂大施主朴相助兩主
 願堂大施主具致善兩主 金相大施主梁武成兩主
 金相大施主林鳳明兩主 漆大施主李萬重兩主
 供養施主學談比丘 供養施主智明比丘
 供養施主知軒比丘 供養施主香尙比丘
 供養施主尙淳比丘 供養施主敏識比丘
 其時本寺秩
 寶月 慧淨 浮雲 法日 香空 宗敏 玉門
 義談 圓光
 其餘施主及本寺僧等繁細記」

원문을 해석해 보면

“법계는 옛과 같아서 비밀스럽고 그윽하여
 금상을 받들어 귀의하고자 하였으나
 얼굴빛이 바래고 무너지니
 一尊이 눈살 찌푸림이 여러 해더라.
 이에 화주 응상비구가 가가호호 일러주고 말하면서
 권자(시주책)를 끼고 권하였으며 동서로 빌며
 이야기하여 선일을 만나 시주를 받았다.
 지장보살 개금을 위하여 곁에 팔금강과 사보살
 제석용탱을 그리고 법계를 옹호하게 하자
 이에 지장보살이 영험하게 되었다.
 앞드려 원하오니 개금이후에는 불일이 거듭
 빛나고 능히 팔만의 법문을 열고 그 가운데서 향이 피어올라
 바로 삼천 세계를 두루 하소서
 건륭2년 정미년 5월에 청화산인 계유 문준이 기록한다.

대계 보살상의 처음 조성은 지원이년에 이루어져서
 처음 개금하였고 이제 건륭2년(1737)에 다시 개금하였다...(후략)”

위 발원문의 내용을 보면, 원명사 지장상은 도금이 탈락된 채 여러 해를
 보내고 청화산 백련사의 승려인 응상이 화주가 되어 칠과 금을 시주받아 개금하

였으며, 권자를 끼고 가가호호를 돌아 다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조선후기 일반적 인 시주의 형태를 따르고 있음도 짐작할 수 있다. 또 이 상은 건륭2년(1737)에 중수되었고, 그 이전도 한번의 중수가 있었음도 밝히고 있다. 조선시대 불상의 도금 중수기간을 참고해 보면 약 70년을 전후해 중수가 이루어지는데⁴⁾ 이로 보면 1737년 이전의 중수는 1650년을 전후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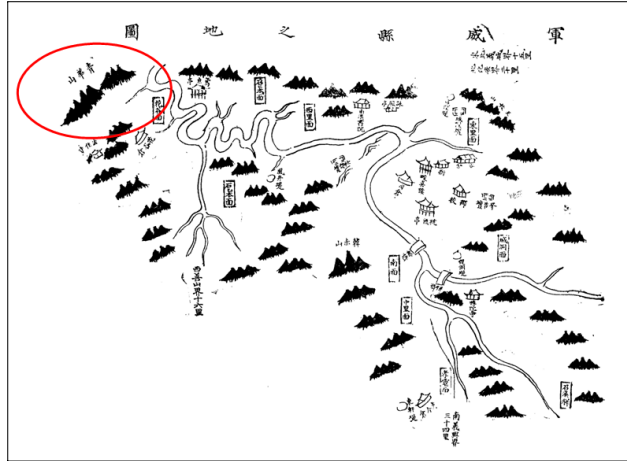
원명사 지장상은 원봉안처에 대해 ‘靑華山 白蓮寺의 老德’, 혹은 ‘靑華山 人’이라는 문구가 있어 청화산 백련사에 봉안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불상 중수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응상, 이 같은 행적을 기록한 문준, 모두 백련 사에 주석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내용이다. 《東文選》에서는 전라도 강진, 경 상북도 청송 등 백련사의 기록이 다수 확인되었으나⁶⁾ 청화산 백련사와 꼭일치하 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후 기록으로 조선의 사찰 위치를 다룬 《 韓國寺刹全書》에서는 청화산 백련사는 군위현에서 西二十五里라 하여 군위 관내에 위치하고 있음과 백련사는 곧 백련암으로도 불렸으며, 의성에 있다고 기 록되어 있다.⁷⁾ 백련사 혹은 백련암이 언제 건립되고 폐사되어 불상이 이안되었 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복장물중 스님의 입멸을 기록한 忌日記에는 백련암, 혹은 인근의 桃李寺와 淨水菴에 주석했던 승려들의 명단과 道光15年(1835)의 기년 명이 있어 이로 보면 백련사는 도리사와 멀지 않은 지역에 적어도 1835년까지는 현존했던 사찰임을 짐작할 수 있다.

4) 최선일, 2006, <朝鮮後期 彫刻僧의 활동과 佛象研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41~143쪽.

5) 중수발원문에는 1650년을 전후한 시기와 1737년에 중수에 관해서만 언급하였으나 실제로는 2~3 번 중수의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한다. 원명사 건칠지장보살좌상의 시주물품 중에는 成化13 年(1477)에 간행된 妙法蓮花經이 봉안되어 있었는데 이로써 보면 1477년 이후 즉 16세기를 전후한 시기에도 중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6) 《東文選》第81卷 白蓮庵記 《泰齋集》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 “圓明谷之南來也 卓錫于 永之還歸寺數年 以其 地隘陋 其近里閑 欲更 卜其所居而未得 手橫短 藤 歷觀諸峯 至安德縣之 母子山 得一地 境幽而 谷深 清泉白石 人迹罕少 朝嵐暮靄 氣象萬殊 髣乎廬山香爐峯矣 明谷 欣得之 自辛卯秋八月 始營治之 越壬辰春 工告訖 自以白蓮額之 請余記 吾聞白蓮之爲庵也 不妄 工作...”이라 하여 圓明谷이라는 승이 머문 安德縣 母子山은 그 풍경이 廬山 香爐峯과 같아 그 곳에 암자를 세우고 ‘白蓮’이라는 편액을 걸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안덕현은 지금의 청 송에 해당한다. 김해 원명사의 이름이 여기에서 연유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동문선의 백련 사의 기록은 김해 원명사의 원봉안처와는 관련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7) 권상로, 《韓國寺刹全書》, 동국대학교 출판부, p.426쪽; “白蓮寺 在慶尙北道軍威縣西二十五里 在靑華山 按卽白蓮庵今義城地” 군위는 선산, 의성, 칠곡, 경산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따라 서 행정구역의 변화에 따라 그 포함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는 의성에 백련사나 백련암의 기록을 찾을 볼수 없었다.



도 10. 군위 관내도, 《한국지명총람》에서 발췌



도 11. 현재의 군관내도

백련사의 보다 정확한 위치는 1985년 전국의 지명을 정리한 《한국지명총람》에서 어느 정도 확인되는데 여기에는 백련사를 군위 현터의 서쪽에 있다고 밝히고, 현터는 현재의 백현동으로 군위군 소보면 관내에 있다. 도 10, 도 11은 군위 官內圖인데 여기서 보면 소보면내 法住寺의 위치나 군위현을 가로지르는 경계가 현재 위치와 거의 동일해 청화산 백련사가 군위 소보면에 소재해 있었

8) 한글학회, 1978, 《한국지명총람》5-경북편 I, “軍威縣之地圖” 와 “군위현관내도” 참조 p.288, 289쪽.

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발원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至元二年”이라는 조성연대이다. ‘至元’은 고려 원종과 충숙왕대의 연호로 1265년과 1336년이 되며 약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

불상의 양식적인 측면으로 보면 1265년은 고려중기에 해당한다.⁹⁾ 이 시기의 작품이 적지만 안동 봉정사 목조보살좌상(1199), 현존 最古의 봉화 청량사 건칠보살좌상,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전반작으로 추정하고 있는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등과 비교해 보면 얼굴의 모습이나, 법의 등에서 양식적인 차이가 커 원명사 지장상은 1336년 작품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양식적인 특징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IV. 지장보살좌상의 특징과 제작시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해 원명사 지장상은 1336년 작으로 국내 유일의 건칠지장보살좌상이다. 도상적인 면에서는 ‘圓頂形’ 혹은 ‘聲聞形’이라고 일컫는 전통적인 모습의 지장보살로 표현되어 고려후기에 유행한 피건형 지장보살과는 차별화되며, 양식적으로는 얼굴 모습이나 인상, 법의 형식 등이 다른 불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징 있다. 이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원명사 지장상의 도상과 양식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도상

김해 원명사 지장상은 비구와 같은 민머리형으로, 이 형식은 원래 조선후기에 유행하게 된다. 그러나 제작사례는 드물지만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성된 전통적인 도상이기도 하다. 민머리 지장보살은 《大乘大集地藏十輪經》이나 《地藏菩薩本願經》, 《地藏菩薩儀軌》등에 전거를 두고 있다(표 1).¹⁰⁾ 이들 내용을 보면 지장보살의 보편적인 형상은 머리를 깎은 剃髮의 ‘성문형’이며, 왼손에 보주, 오른손에 석장 등 지물을 들고 있는 형상임을 알 수 있다.(이하 민머리는 성문형으로 사용함)

⁹⁾ 고려중기는 11세기 후반부터 몽고와의 전쟁이 끝나고 개경으로 천도하는 1270년 사이로 보고 있다. 정은우, 2008, <고려중기와 남송의 보살상>, 《미술사, 자료의 해석》, 일지사, p.180쪽.
¹⁰⁾ 박은경, 2009, <2.왕실관련 絹本佛畫:일본고묘지 <지장시왕도>>, 《조선전기불화연구》, p. 15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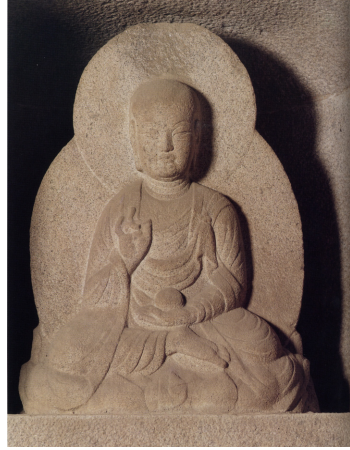
<표 1> 성문형 지장보살상 관련 경전

경전		내용
《大乘大集地藏十輪經》	序品 第1	“爾時世尊告無垢生天帝釋曰 汝等當知有菩薩摩訶薩 名曰地藏 已於無量無數大劫 五濁惡時 無佛世界成熟有情…并諸眷屬作聲聞像將來至此 以神通力現是變化。”
		“地藏眞大士 具杜多功德 現聲聞色相”
《地藏菩薩本願經》	忉利天宮神通品	“地藏菩薩證十地果位已來 千倍多於上喻 何況地藏菩薩諸聲聞辟支佛地”
《地藏菩薩儀軌》		“次說畫像法 作聲聞形像 著袈裟 端覆左肩”
《地藏儀軌》		“不空軌云 內祕菩薩行 外現比丘相 左手持寶珠 右手執錫杖 安住千葉青蓮華”

성문형 지장보살상은 우리나라에는 적어도 8세기 초에는 알려진 것으로 추정된다.¹¹⁾ 그러나 현존하는 상으로는 8세기 중엽에 조성된 석굴암 감실의 지장보살상도¹²⁾ 이 最古의 예이며, 고려 전기에는 범주사 마애지장보살상이 있다¹³⁾. 두 작품 모두 석장을 들고 머리를 깎은 성문형이며, 가슴 위로 오른손을 들고 왼손에 보주를 들고 있어 앞 서 살펴본 경전에 가장 가깝게 조각된 상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석굴암과 범주사의 지장상은 주존불에 비해 규모도 작고, 감실 혹은 주불의 측면에 조각되어 있어 예배대상의 主像은 되지못했음을 보여준다.

고려후기가 되면 불안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듯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불화나 불상의 조성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이 시기의 지장보살은 경전에 전거를 둔 성문형과 머리에 두건을 쓴 피건형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11) 《三國遺事》 卷第3 塔像 第4 臺山五萬眞身條, “赤任南臺面置地藏房安圓相地藏 及赤地畫八代菩薩爲首一萬地藏…” ; 지장방에 원상지장을 그려 봉안하였다고 하였으며, 여기에서 원상은 정수리가 둥근 성문형의 지장 도상을 의미하는 것이라 추정된다. 이 기록은 신라 신문왕(681~691)의 아들로 오대산에 들어가 입산수도하며, 생애를 보낸 寶川이 오대산에서 국가를 補益하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적어도 8세기 초에는 성문형 지장의 도상이 들어왔음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다.



도 12. 석굴암 감실 석조지장보살좌상
(8세기 중엽)



도 13. 법주사 경내 마애지장
보살좌상 (11세기경)



도 14. 경천사지10층석탑(2층)
부조지장보살입상(1348)



도 15. 일본 중궁사
지장보살도

다만 남아 있는 성문형 지장보살의 사례를 보면 불화가 압도적으로 많고, 상으로 조성된 것은 경천사지 10층탑(1348) 2층과 4층의 탑신에 지장보살이 부조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유일하다(도 14), 그리고 조선전기에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부조된 지장보살상과 16세기에 제작된 목포 달성사와 경상북도 봉화 청량사에 있는 목조 지장보살상들이 전한다.

<표 2> 성문형 지장보살상 조성사례(고려후기까지)¹²⁾

명칭	제작시기	상고(cm)	비고(현위치)
1. 석굴암 석조지장보살좌상	8세기 중반	88.6	석굴암내 불감
2. 법주사 마애미륵·지장보살상	11세기경	313.0	본존우측암벽
3. 경천사지 10층석탑 부조지장보살상상	1348년		2·4층탑신 서측

<표 3> 고려후기 성문형 지장보살도의 작품사례¹³⁾

형태	명칭	제작시기	크기 (가로/세로cm)	비고 (현위치)
독존도	1. 善導寺 地藏菩薩圖	고려후기	110.0/43.5	日本 福岡市
	2. 中宮寺 地藏菩薩圖	고려후기	102.5/40.0	日本 奈良縣
	3. 국립중앙박물관 地藏菩薩圖	1307년	21.0/12.0	韓國
지장시왕도 주존	4. 日光寺 地藏十王圖	고려후기	116.4/58.9	日本 岡山縣
	5. 知恩院 地藏十王圖	1320년	156.1/85.1	日本 京都市
	6. 寶道寺 地藏十王圖	고려후기	116.3/62.8	日本 岡山縣
관음·지장 보살병립도	7. 西福寺 觀音·地藏菩薩並立圖	고려후기	99.0/52.2	日本 福井縣
아미타삼존도 협시	8. 個人所藏 阿彌陀三尊圖	고려후기	87.8/45.2	日本 京都市
	9. 湖巖美術館 阿彌陀三尊圖	고려후기	110.0/51.0	韓國
아미타팔대 보살도 협시	10. 廣福護國寺 阿彌他八代菩薩圖	고려후기	153.5/86.5	日本 佐賀縣
	11. Banna-ji 阿彌他八代菩薩圖	고려후기	153.0/84.3	日本 ?木縣
	12. 大念佛寺 阿彌他八代菩薩圖	고려후기	161.7/92.9	日本 大阪市
	13. 徳川美術館 阿彌他八代菩薩圖	고려후기	143.0/87.0	日本 名古屋市

그러나 고려후기 불화에는 보다 많은 작품들이 보인다. 일본에 소재한 寶道寺나 知恩院 地藏十王圖(1320), 中宮寺地藏菩薩圖(도 15)와 善導寺 地藏菩薩圖, 1307년 노영의 地藏菩薩圖 등 독존도, 지장시왕도의 주존불, 아미타삼존도나 아미타팔대보살도의 협시 등 다양한 예가 있어 성문형 지장보살상이 피견형 지장보살과 더불어 활발히 제작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고).

12) 조선전기에 조성된 지장보살은 아미타삼존상의 협시로 충남 서산 개심사 목조지장보살입상, 충남 금산 신안사 목조지장보살입상이 알려져 있다.

13) 菊竹淳一·鄭于澤, 1996, 시공사, 《高麗時代の佛畫》에 소개된 내용을 목록으로 만든 것이다.

2. 양식적 특징

원명사 지장상은 앞서 언급했듯이 남성적인 인상, 승각기가 드러나지 않는 변형통견식의 착의법, 손목 위로 넘긴 대의 자락, 그리고 살집 있는 가슴과 배, 넓고 당당한 다리 위에 호선으로 표현된 균의주름 등이 특징이며, 당시 보편적 양식을 보이면서도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선 얼굴(도 16)은 볼이 다소 맛맛하고, 둥근 턱의 볼록함이 줄어들었다. 좁은 이마로부터 이어지는 날카로운 콧날, 작은 입, 그리고 전체적으로 단정해졌으며, 남성적인 인상이 강하다. 비슷한 시기의 상으로 1346년 장곡사 동조약사여래좌상(도 18)도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데 볼록함이 빠진 듯한 뺨이라든지 둥근 턱, 맛맛해진 눈두덩, 사실적이면서 단정해진 얼굴이 유사하다. 또한 호림미술관 소장인 동조보살좌상(도 20)과도 좁은 이마와 둥근 턱, 길면서도 쪽 뺨은 콧날 등에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원명사 지장상이나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등과 같이 14세기 불상의 얼굴모습과 인상은 이 시기의 상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14세기 중엽경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日本 京都市 知恩寺所藏 阿彌陀三尊圖는 관음과 세지를 거느리고 약간 오른쪽으로 향하여 움직이는 듯 한 내영도 형식의 그림으로 원명사 지장상과 매우 근사한 특징의 불보살이 있어 주목된다.¹⁴⁾ 세지보살의 얼굴(도 17)은 양감이 빠진 듯한 양 볼과 둥근 턱, 좁은 이마와 이로 내려오는 날카로운 콧날 등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또 日本 大阪市 法道寺 阿彌陀三尊圖¹⁵⁾ 에서도 원명사 지장상과 유사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도 16. 원명사 건칠지장보살좌상 얼굴세부(경남 김해, 1336년)



도 17. 知恩寺 阿彌陀三尊圖 대세지보살의 얼굴세부(일본, 14세기 중반)



도 18. 장곡사 동조약사여래좌상 얼굴세부(충남 청양, 1346년)

¹⁴⁾ 菊竹淳一·鄭于澤, 앞책(도판편) p.88, 도.38와 (해설편) p.73,

¹⁵⁾ 菊竹淳一·鄭于澤, 앞책, 도판편, p.82, 도34참조.



도 19. 원명사 건칠지장 보살좌상
얼굴 측면
(경남 김해, 1336년)



도 20. 동조보살좌상 얼굴측면
(호림미술관, 14세기)

따라서 원명사 지장상의 얼굴은 14세기 보편적 특징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원명사 지장상은 편삼 위에 대의를 편단우견으로 돌려 입은 변형 통견식으로 대의자락을 왼팔 위로 넘겨 마무리하였다. 전체적인 착의법에서 승각기는 반드시 표현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실제 원명사 지장상과 같이 대의 안으로 승각기가 보이지 않는 것은 통일신라초를 전후한 불상에서도 확인되지만 원명사 지장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러한 착의법은 현재까지는 원명사 지장상이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오른 팔에 편삼을 입고 그 위에 대의를 걸친 착의법의 유행은 고려 후기 불화 작품에서 종종 등장한다. 일본 日本 禪林寺 阿彌陀如來圖(도 22)는 14세기 중반으로 편년되고 있는 작품으로, 오른쪽 어깨위에 편삼을 입고 그 위에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은 변형편단우견의 대의를 입었다. 오른 팔 위로 편삼이 드리워진 모습과 오른쪽 어깨에 대의를 살짝 걸치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김해 원명사 지장상과 같은 착의 형식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의 廣福護國禪寺 阿彌陀八代菩薩圖의 본존이나¹⁶⁾ 14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동경국립박물관 아미타삼존도의 본존도 역시 오른쪽 어깨에 편삼과 그 위에 변형편단우견으로 돌려 입은 모습을 하고 있다. 즉, 원명사 지장상과 같은 착의법은 다양했던 고려 후기 법의형식 중의 하나였음은 분명해 보이며¹⁷⁾ 당시 유행했던 형식임을 알 수 있다. 또 형식적이고 도식화된 신체 표현이 특징인 14세기 불상 사례와 달리 풍만한

¹⁶⁾ 菊竹淳一·鄭于澤, 1996, 앞 책, p. 17 도50참조.

¹⁷⁾ 승각기 표현없이 편삼위에 변형편단우견으로 입은 형식의 불보살일 표현된 불화 작품사례가 많아 참고 된다.

불화의 제작시기는 菊竹淳一·鄭于澤, 1996, 《고려시대의 불화》 해설편을 참고하였다.

기슴과 볼룩한 배 신체의 사실적인 표현이 두드러져 비교된다. 따라서 원명사 건칠지장상은 조각 보다는 회화적 사실성이 두드러진 작품으로 생각된다.(도 24).



도 21. 원명사 건칠지장보살좌상 (김해, 133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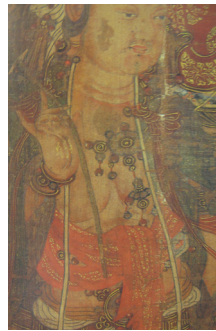
도 22. 일본 禪林寺 아미타여래도 (京都府, 14세기중엽)



도 23 원명사 건칠지장보살좌상 상반신 세부(1336년)



도 24. 일본 法恩寺 아미타삼존도 본존과 보살의 상반신 세부(1330년)



	명칭	조성시기	규격(縱橫,cm)	비고
1	不動院 毘盧舍那佛圖	13세기 중반경	175.9/87.1	日本 廣島市
2	廣福護國禪寺 阿彌陀八代菩薩圖	13세기말엽	153.5/86.5	日本 佐賀縣
3	島津家 舊藏 阿彌陀如來圖	1286년	203.5/105.1	日本 島津家 舊藏
4	Musee Guimet 阿彌陀如來圖	14세기중반경	104.0/46.0	France Paris
5	東京國立博物館 阿彌陀三尊圖	14세기 초	123.0/55.8	日本 東京都
6	MOA美術館 阿彌陀三尊圖	14세기중반	100.9/54.2	日本 靜岡縣
7	松尾寺 阿彌陀三尊圖	14세기중반경	109.5/55.7	日本 京都府
8	白鶴美術館 阿彌陀三尊圖	14세기중반경	1333.3/58.9	日本 神戶市
9	一(火변)田寺 阿彌陀三尊圖	14세기중반경	89.8/52.0	日本 島根縣
10	리움미술관 阿彌陀三尊圖	14세기중반경	110.0/51.0	韓國
11	徳川美術館 阿彌陀八大菩薩圖	14세기초반	143.0/87.0	日本 名古屋市
12	西尾寺 阿彌陀八大菩薩圖	14세기중반경	130.0/84.6	日本 愛知縣
13	淨教寺 阿彌陀八大菩薩圖	14세기중후반	173.1/91.1	日本 京都市

한편 변형통견식으로 대의를 입은 다음 옷자락을 왼팔 위로 넘겨 마무리한 대의자락은(도 25-①) 삼국시대 불상에서 그 시원을 두고¹⁸⁾ 통일신라와 고려까지 이어지는 전통적인 표현법으로, 고려 전반기 철불이나 석불 중에는 왼쪽어깨로부터 내려오는 띠고리로 고정된 대의자락을 왼팔 위로 넘겨 모양을 낸 모습도 볼 수 있다(도 25-④). 특히 원명사 지장상과 대동소이한 형태는 12세기말에서 13세기 초로 추정되는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 찾을 수 있다. 여러 겹으로 접혀 옷자락과 구불구불한 끝단의 모양은 매우 닮았으나 원명사 지장상의 옷이 다소 두꺼워 보이고 딱딱하게 경직되어 보이는 점, 탄력 없이 풀어진 듯한 구불구불한 옷 주름 등은 시대적 차이로 생각된다. 또 1388년에 개금한 것으로 알려진 광주 자운사 목조여래좌상(도 25-③)은 긴 앞사귀 모양의 옷자락이 팔위로 드리워져 있으며, 기년명은 없지만 14세기 작으로 추정되는 日本 長崎縣 黒崎釋迦堂의 金銅如來坐像¹⁹⁾, 佐賀縣 大聖院 金銅如來坐像²⁰⁾도 다른 형태이지만 팔위로 넘긴 대의 마무리는 보편적인 양상으로 파악된다.



① 김해 원명사(1336년) ② 안동 보광사(13세기전반)
③ 광주 자운사(1388년 개금) ④ 원주출토 철불(고려전기)

도 25. 각 불상의 대의 처리 좌측면 세부

한편 원명사 지장상은 다리 위에 흘러내린 호선의 탄력 있는 주름(도 26)은 14세기 작으로 호암미술관 금동여래좌상²¹⁾에서도 확인되며, 특히 여말선초의 작

18) 김춘실, 1990, <三國時代 施無畏·與願印 如來坐像 考>, 《미술사연구》제4호, p.16~19쪽.
19) 박은경·정은우, 2008, 《西日本지역 한국의 불상과 불화》, 민족문화, p.90, 91참조.
20) 박은경·정은우, 2008, 앞책, p.40~43참조.
21) 정은우, 앞논문, 2001, 도 88참조.

품으로 추정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건칠보살좌상(도 27)은 재료의 동일성은 물론 탄탄한 다리 위에 표현된 두 개의 호선을 그리는 옷주름의 모양이 원명사 지장상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도 26. 김해 원명사 건칠지장보살좌상
군의세부(1336년)



도 2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건칠보살좌상군의세부(여말선초)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명사 지장상은 고려 이전 부티의 오랜 전통적 도상과 양식을 수용하면서도 얼굴과 法衣形式, 옷 주름의 형태 등에서는 14세기 고려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후기 불화적 특성도 반영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고려후기 불상과 불화와의 관련성은 이미 대좌 및 보살상의 장신구 등에서 지적된 바 있다.²²⁾

V. 맺음말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맺음말에 대신코자 한다. 원명사 지장상은 개금중수발원문을 통해 至元 2年인 1336년에 제작, 1737년에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 한번의 이전 중수는 조선시대 불상 중수의 통례적 기간을 근거로 1650년을 전후한 시기로 추정해 보았다. 原所藏處는 백련사였으며, 백련사는 군위군 소보면에 위치한 사찰이었음도 확인되었다. 양식적으로도 얼굴모습이나 신체표현, 법의 형식 등이 14세기 불상양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례적인 착의법과 신체 표현은 14세기 불화와 그 특징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통성을 가진 성문형 지장보살의 도상은 불화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으나 조각으로는 원명사 지장상 외에는 아직 발견된 바 없으며, 당시 불화가 유행했던 시대적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²²⁾ 정은우, 2007, <수덕사 대웅전의 14세기 목조대좌>, 《高麗後期 佛教彫刻研究》, 문예출판사, pp.327~330

마지막으로 이미 지적된 바 있었지만 김해 원명사 지장상을 통해 경상도 지역이 漆像의 중심지로 다시 한 번 부각된다.²³⁾ 전시대의 내용을 포함한 《世宗實錄地理志》나 《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보면 칠의 생산은 경상도가 가장 많고, 전라도와 충청도의 순이며, 칠과 같이 고려왕실이나 고위직에 있는 인물에게 물품을 공급했던 所의 장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도 경상도 지역이었다.²⁴⁾ 또한 현존 최고의 건칠상이 경상도인 봉화 청량사에 남아 있고, 이어 군위 백련사 건칠지장보살좌상(1336) 즉 김해 원명사상과 15, 16세기를 걸쳐 경상도 지역에서 꾸준히 칠상이 제작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경상도가 상질로 다량의 칠을 생산하기 때문인지 혹은 전통적으로 칠상을 조성한 지역으로 숙련된 장인의 보유 등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원명사 건칠지장보살상은 성문형에 사실적이면서도 독특한 얼굴 모습 등이 매우 독특하여 비교가 가능한 작품이 많지 않은 편이다. 이에 구체적인 분석은 다소 미비하였지만 고려후기 지장상의 새로운 자료로서 소개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기대해 본다.

■ 투고일 2009년 7월 20일 | 심사완료일 2009년 8월 10일 | 게재확정일 2009년 8월 28일 ■

23) 김광희, 2006, <朝鮮前期 菩薩像의 研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33~42;
 최은령, 2007, <韓國의 乾漆佛像研究-大邱 把溪寺 乾漆觀音菩薩坐像>, 《불교미술사학회》 제5집, pp.161~167쪽.
 24) 강만길, 1984, 《조선시대 상공업사연구》, 한길사, p.15~25쪽

참고문헌

- 《三國遺事》
《東文選》
《東國輿地勝覽》
《世宗實錄地理志》
《經國大典》
《高麗, 영원한 美》, 1993, 호암갤러리
《高麗時代의 佛畫》, 1996, 菊竹淳一·鄭于澤 공저, 시공사
《경천사지십층석탑》 I, II, III, 국립문화재연구소
김광희, 2008, <16세기 보살상연구>, 《文物研究》제14호. 동아시아문화연구원
학술재단·한국문화연구원.
김광희, 2006, <조선전기 보살상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만길, 1984, 《조선시대 상공업사연구》, 한길사.
김정희, 1997, <韓·中 地藏圖像의 比較考察-頭巾地藏을 中心으로>, 《講座 美術史》제9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김정희, 2004,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일지사
김춘실, 1990, <三國時代 施無畏·與願印 如來坐像 考>, 《미술사연구》제
4호. 미술사연구회
권상로, 《韓國寺刹全書》, 동국대학교 출판부
박은경·정은우, 2009, 《西日本 지역 한국의 불상과 불화》, 민족문화
박은경, 2009 <불화소재의 다양성>, 《조선 전기 불화 연구》, 시공사, 150-208
박영숙, 1983, <고려시대 지장도상에 보이는 몇 가지 문제점>, 《고고미술》157,
한국미술사연구회.
진홍섭, 1991, 《韓國美術史資料集成(3)-朝鮮前期 建築·彫刻·書寫·工
藝편》, 일지사.
임종욱, 2006, 《동양학대사전》2, 경인문화사
임영애, 2001, <고려전기 원주지역의 불교조각>, 《美術史學研究》228·229,
한국미술사학회
정은우, 2008, <고려중기와 남송의 보살상>, 《미술사, 자료의 해석》, 일지사
정은우, 2008, 《고려후기 불교조각연구》, 문예출판사
정은우, 2001, <고려후기 불교조각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은우, 2007, <수덕사 대웅전의 14세기 목조대좌>, 《高麗後期 佛教彫刻研究》, 문예출판사330
- 한글학회, 1978, 《한국지명총람》5-경북편 I
- 홍승기, 1975, <고려시대의 공장>, 《진단학보》40호, 진단학회, 63-79
- 최은령, 2007, <韓國의 乾漆佛像研究-大邱 把溪寺 乾漆觀音菩薩坐像>, 《불교미술사학회》제5집,

Abstract

A Study on the Lacquered statue of Ksitigarbha buddhisattva in Won-myeong Temple, Kimhae

Lee Hee Jung

Won-myeong Temple is located in Daedong, Kimhae, Gyeongnam province, and it enshrines a body of Lacquer statue of seated Ksitigarbha buddhisattva within its Ksitigarbha hall. The height of statue is 75.5cm, it has a stable body posture and a good body proportions with a realistic facial features, it has a very distinctive characteristic such as a natural and tendered appearance of sacerdotal robe. Due to the equal belief, it has been presumed to be a lacquered statue. In January of 2009, there were two phases of examinations and has found, not only the raw material called as lacquer but also valuable materials as such as Wish Writings which has been restored in gold varnishes, a book of the Sutra of the Lotus, a recorded document of anniversaries and a Bottle of Five Jewels.

According to the Wish Writings of lacquer statue of Ksitigarbha buddhisattva placed in Won-myeong Temple, it was created in the year of 1336-the 2nd year of Tokon-Temur, and it has been repaired in the year of 1737 due to the gold varnish wear outs. It also indicates that there has been a prior restoration. The Buddha statue's restoration has begun about 70 before and after years of Choseon period which is around the year 1650. The record shows that the statue was originally placed in Mt. Cheong-hwa's Baek-reon Temple which falls under the current jurisdiction of Sobo-myeon(a subdivison of county), Geun-ui county, and it is believed to be relocated to Won-myeong Temple after the close out of Baek-reon Temple.

Won-myeong Temple's lacquer statue of Ksitigarbha buddhisattva is

a traditional bald headed Ksitigarbha buddhisattva which conforms the Sutras, a stalemated face as it has lost weight and robe's crease expressed on the dignified and stable leg reflects the elegant style of Koryo in late 14th century. Other than the 1348's Ten-story Pagoda of Gyeongcheon Temple; a bald headed Ksitigarbha buddhisattva is extremely rare case of buddha statue; however, there are diverse forms of icons in buddhist paintings which applicably shows a result of a wide spread in buddhist paintings within the society of late Koryo.

One thing not to be overlooked is the place of preparation for the Kimhae Won-myeong Temple's lacquer statue of seated Ksitigarbha buddhisattva, it is important to note its origin placement of Geun-ui, Gyeongsang province. Sejong's authentic record of the geography (Sejong-sil-rok-ji-ri-ji) or the Dong-guk-yeo-ji-seung-ram which have bases on the records of Koryo shows that paints have been produced in Gyeongsang province the most followed by Jeolla province and Choongchung province. The most of craftsmen who provided goods to the Koryo's royal family and high ranking officials were also from Gyeongsang province. In other words, Gyeongsang province had an advantageous condition than any other areas to prepare those painted statues. It is not irrational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elevancy between the paints and Gyeongsang province area, repeatedly; that is, a lacquer statue has begun to be prepared in Gyeongsang province for a long time; the best lacquer statue exist in Bonghwa Cheong-ryang Temple and Won-myeong Temple enshrines a lacquer statue of Ksitigarbha buddhisattva(1336), a lacquer statue of seated compassion buddhistva (the Buddhist Goddess of Mercy) is in Yeong-deok and a 15th century's lacquer statue of seated compassion buddhistva in Daegu Pa-gye Temple (restored in 1447); and those cease to exist as such as a lacquer statue in Hapcheon Hae-in Temple(1448), Gyeongju Gi-rim Temple's a lacquer statue of seated compassion buddhistva (1501) of 16th century and Andong Suh-ak Temple's a lacquer statue of seated Tri-Loka Buddhas. There could be a number of possibilities for the continuations of lacquer statues in Gyeongsang province such as a fine

quality of paints and existence of craftsmen those who prepared the Knshitsu statues traditionally.

Won-myeong Temple's lacquer statue of seated Ksitigarbha buddhisattva is the one and only bald headed style Ksitigarbha buddhisattva in Korea with a preparation year of 1336. The statue is very important in studying the late Koryo's buddha statues, and it is also valuable piece of work to identify the aspects of buddhist culture during the Koryo period.

Key words : Won-myeong temple, Baek-reon temple of Cheong-hwa mountain, Castle-gate style Ksitigarbha buddhisattva, Lacquerd